

고은 불교 대하소설

무전

무전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 워낙 거센 파도더미에 혼이 났던 터라 걸음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마음은 우울한 상태였다.

이런 무전의 형편을 여성의 직감으로 알아차린 합두가 그에게만 쓰레기죽을 끓여 주었고 인담에게 처방을 의뢰해서 탕약까지 정성스레 달여 주는 것이었다.

"합두스님에게 한 가지 더 할 일이 생겼네"라고 우녀가 말하였다.

"저쪽 바위 위로 가서 막막하게 앉아 있는 그 스님의 뒷모습이 심상치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괜히 변명 같아서 얼굴을 슬쩍 붉히기까지 하였다.

이 그의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 나왔다. 합두의 눈길이 그런 무전의 '눈길'에 마주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슬픈 보석과도 같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다행히 밖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그 인기척에 의해서 합두의 손이 무전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제 곧 공양을 지을 시작합니다"라고 말하고 합두가 방을 나갔다.

약그릇의 약은 그대로 있었다. 무전은 끝내 그것을 마시지 않고 식혀버리며 눈에 눈물을 글썽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침실과 저녁 사이의 약도 거르는 일 없이 달려서 무전에게 가는 일을 합두는

아름다움이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치러야 할 어떤 댓가가 있는지 모른다.

... "내 몸이 사람들에게 오염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에게 죄가 있는지 몰라"

해서 후원으로 들어온 우녀에게 "앞으로 며칠동안 스님께서 무전스님을 보살피 주시지요. 제가 합부로 간병실에 드나드는 것이 자주 꺼려집니다."

우녀가 그런 합두의 사연을 간파하였다.

"아닙니다. 합두스님이 더 정성을 드려서 무전스님의 병을 낫게 하세요. 그것도 수행입니다."

아름다운 합두에게는 무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다. 아름다움이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치러야 할 어떤 댓가(代價)가 있는지 모른다. 그녀는 일찌기 자아비를 잃은 뒤 그녀를 사모하는 사내 때문에 마음의 통로가 있었거니와 이제 그런 세속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가 이곳에 와서 들은 말 한 마디가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둔한 직선(直線)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연꽃을 두고 아름답되 오염하지 않다고 한 '애련설(愛蓮說)'을 인용하면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한 대목을

이다. 파도더미에 몸을 삼켰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앓아누워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글썽글썽하다."

"수원의 열꽃은 바람이 씻어갔다 하겠는데 이번에는 무전이 누워 버렸으니 저 병은 무엇으로 씻어내야 하는지..."

"글썽글썽하다."

"무슨 상사병 같은 것은 아닌지... 합두스님에게 약 수발을 맡긴 일이 탈이 난 것이나 아닌지."

이렇게 되자 무전 쪽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인담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의 하나인 무전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에 힘이 났다.

"장부의 병은 장부가 아는 일이겠지! 장부의 기상도 장부만이 아는 일이겠지!" 라는 어떤 자부심까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담은 다른 사람들, 만화와 과학 현 불이 수원 수월 남작 들에게 번갈아가며 무전의 병실을 맡게 하였다. 어느덧

눈에 합두의 뒷모습이 보여도 언제 그녀에게 향한 흠모의 색정이 있었는지 모르게 한 집안의 도반(道伴)의 그것이었다.

만화가 그런 무전의 등쪽을 탁 쳐다.

"이제야 무욕도에 시름 하나가 날라갔어! 됐어! 됐어!"

"그동안 고생을 시켜 드렸지요"

"아니라네, 됐어! 이제 됐어!"

"이 다음에는 제가 그런 고생 다 맡겠습니다."

"예! 이 사람아... 나더러도 앓아 누으



수미산

25

"하기야... 장차 4만유순(由旬) 8만유순의 먼 행로를 가셔야 겨우 수미산의 세계 밑에 다다를 것이나... 심신이 튼튼해야겠지요. 잘 보살피 주세요. 굳이 출가한 수행자를 음양(陰陽)으로 갈라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남정네들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여자에게는 어린 아이와 다를 바 없겠지요."

우녀가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허물 없는 처지가 되자 합두도 한 마디 하는 것이었다. 그녀로서는 뜻밖의 대우였다.

"...호오 그렇다면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4생(四生)의 자비로운 아버지(慈父)이기에 앞서 어린 아이이시겠네요."

우녀가 뜻밖이라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기야 마야부인이 낳은 갓난아기 이셨지요..."

그만 두지 않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녀는 아무런 감정의 자취도 일으키지 않았다.

해가 수평선에 닿을락 말락하는 때에 다시 약그릇을 들고 지대방으로 들어갔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저 식은 약은 내일 테우드리겠습니다."

합두의 뒷모습이 보여도 언제 흠모의 색정이 있었는지... "이제야 무욕도에 시름하나가 날라갔어" 그들이 큰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풀썩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다

"무릇 도가 높은 경계는 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마음 그것 아닌 적이 없겠지요. 그러나 무전스님도 아이처럼 잘 돌보아주세요. 이 무욕도 도량의 어느 사람 하나도 장차 우주 속을 드나드는 큰 일을 맡을 것입니다. ...그러니 합두스님이 우주를 돌보는 셈이지요."

우녀가 약 냄새가 나는 후원을 나갔다. 합두는 삼발 밑의 불을 좀 약하게 만들었다.

한동안이 흘러가서 약을 잔 뒤 그 약그릇을 들고 무전이 들어가 있는 큰방 옆의 간병실(看病室)인 지대방으로 갔다.

그녀가 약그릇을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놓았다. 그러자 무전의 손바닥이 그녀의 손등을 덮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무전의 간절한 말

무전은 아주 순한 짐승처럼 약을 마셨다. 빈 약그릇을 건네주다가 그는 이번에는 합두의 손을 잡아버렸다.

"이 섬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배를 타는 일 밖에 없습니다. 헤엄치는 일로는 어림 없습니다. 합두스님!"

이 말은 배를 타고 떠나자는 강한 암시였다. 과연 무전의 말소리와 몸이 하나로 떨리고 있는 중이었다.

합두가 비로소 그녀의 검푸른 눈으로 무전을 쳐다보며 무전에게 한 마디 던졌다.

"이 섬에는 이 섬으로 돌아올 배 말고는 어떤 배도 없습니다. 스님의 마음이 어서 낮기를 빌 따릅니다."

그녀는 손을 지그시 뺐다. 상대방에게 어떤 실망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였다.

하지만 합두는 밥 짓는 시각에 돌기 위

해기하듯 불이스님한테 들은 것이었다.

"내 몸이 사람들에게 오염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에게 죄가 있는지 몰라"

이런 마음속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합두는 그러나 그 뒤로도 며칠동안 태연하게 무전의 약을 달여다 주는 일을 계속 하였다.

웬 일인지 무전 쪽에서도 더는 손을 잡는 행실 따위는 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정성에 감사하는 묵례만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전은 합두의 정성으로도 마음에 병이 깊어가고 있었다. 끝내 그는 죽도 사할하고 풀썩 누워버린 것이다. 합두에게 전지기 힘든 일이기도 하였다.

인담과 우녀가 무전의 일로 의논이 있었다.

"아무래도... 무전의 일이 심상치 않습

"...아무래도 이곳에서 가장 먼저 수미산에 오를 사람이 무전스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우녀의 단호한 예감에 의하면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인담은 그런 예감 밖에 있었다.

"수미산 가는 일이야 기러기의 행로로 함께 가는 것이 좋겠지요."

"외기러기의 발도 있겠지요"

인담이 말하였다.

"이제 내가 병 구원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녀는 가타부타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장 합두가 달이는 약 처방을 다른 처방으로 바꿨다. 그 약을 인담이 손수 들고 가서 무전을 일으켜 앉힌 다음 먹도록 하였다.

합두와의 사연 따위는 다 놓아버린 것 같았다. 합두는 전혀 무전에게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수행만큼 바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죽여야 하였다. 옛날 어느 아름다운 여승 때문에 남자 불이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진 뒤 그 여승은 제 얼굴을 임결 불에 물어뜯은 다리미로 지저버려서 추녀로 바꾼 일이 있었다.

바로 그런 일을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끝내 무전은 마음의 상태가 본래대로 돌아왔다. 간병실로 쓴 지대방에서 나와 눈부신 맑은 날의 바다 앞에서 그는 본래의 그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새삼 그의 거드름에 바닷바람이 드나들었고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탁 트인 파도소리가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 무전의

란 말인가

"아닙니다"

"나는 앓아 눕는 일이 없을 것일세. 그냥 이대로 서서 이 세상을 다할 것이야... 왜 부처님들은 하나같이 다 알아 깨신 북 처일까? 나는 서 있는 부처가 될 것이야 하하"

"과연 만화스님 다운 큰 포부입니다"

"무전! 재대로 나하고 다를 바 없는 큰 포부의 비구가 아니런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부처님께 비는 일이 바로 부처님 옆구리에다가 가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들 사이에 인담이 나타났다.

"말로 정진을 다하는 중이신가! 하하"

"하하"

"하하"

그들은 이 도량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공중에 날리고 있었다. 그런 웃음소리는 어떤 군대의 진두(陣頭)에서 있는 것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큰방으로 들어갈 무렵이 되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풀썩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무전이었다.

"아니 이 사람이!"

하고 만화가 쓰러진 무전을 일으켜 세웠다. 들쳐 업고 방으로 갔다. 무전의 맥이 끊어진 줄 모르면서.



그림 · 조항숙

▶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1

우·리·결·에·살·아·계·시·던·부·처·성·철·스·님·을·모·십·니·다

성철 큰 스님

한일문화
종로구 진동동 87-1
건지사 B0 402호
작품문의 02) 730-015 730-2858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80평생을 자기 성찰에 힘쓰신 성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생각하게 하는 성철스님의 깊은 뜻을 분청자에게 담아 전합니다.

한일이 마련하는 문화보급기획!

성철 큰 스님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위해

당대 최고의 작가들께서 공동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금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마련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 성철 큰 스님을 한일문화와 함께 만나십시오.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획 보급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귀한 빛을 더합니다.

영원히 소장할 귀중한 작품으로 두번다시 없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철스님 물

한일문화원에서는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의 모습을 도자기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그 열을 빛내기 위해 기획 보급하여 살아있는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4년 5월작 37×89
3대작가 공동작 (글, 그림, 문장지기)
(老村 李九榮 글 · 黃岩 제작 · 金동원 그림)
우리시대 위대한 스승 ① 성철 큰 스님

80개 한정 주문제작